

노스페이스, 아웃도어·의류·패션 '브랜드파워 1위'

혁신적 기술·트렌디한 디자인의 힘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49위…20계단 상승
NBCI·NCSI서도 아웃도어 부문 모두 석권
전 세대 만족시키는 다양한 신제품 큰 힘
얇고 가벼운 자체개발 VX 소재 재킷 첫선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www.thenorthfacekorea.co.kr)가 올 한해 있었던 각종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아웃도어 업계 '최고의 브랜드'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최근 브랜드 가치평가 전문기관인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2014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서 노스페이스는 전체 49위에 선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20계단이나 상승한 순위로 의류, 패션, 아웃도어 업계를 통틀어 1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노스페이스는 올해 초부터 브랜드스탁과 한국생산성본부 등 국내 주요 브랜드 가치평가 기관에서 실시한 평가에서도 아웃도어 부문 1위에 오르며 업계 최고의 브랜드임을 증명했다. 브랜드스탁에서 진행한 2014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아웃도어 부문 1위를 비롯해 한국생산성본부의 '2014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에서는 7년 연속 아웃도어 1위 브랜드로 선정됐다. '2014 국가고객만족도(NCSI)'에서도 올해 처음 시행한 아웃도어의류 부문에서 초대 1위 기업의 영예를 안았다. 노스페이스가 주요 브랜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가장 큰 이유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점점 더 세분화되는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였기 때문이다. 트렌디한 컬러와 디자인을 제품에 접목시켜 세대 구분 없이 높은 브랜드 호감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큰 몫을 했다.

●자체 개발한 혁신적 보온소재 VX 보온재킷 첫선

노스페이스의 올 시즌 주력 다운재킷인 여성용 '칼리아 다운 코트'부터 남성용 '클라우스 다운 파카', 남녀공용 '브렌트 파카', '스펙트럼 다운 재킷'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노스페이스 다운 제품은 최고급 구스다운과 자체 개발한 발열안감인 '프로히트(PROHEAT)' 및 방수·방풍·투습 원단인 '하이벤트(HYVENT)'를 사용해 보온성을 강화하고 외부의 눈과 비로부터 신체를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아울러 역동적인 활동에도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됐다. 슬림하면서 세련된 디자인으로 아웃도어는 물론 일상생활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노스페이스가 자체 개발한 혁신적 보온소재인 VX를 사용한 다양한 보온 재킷도 올해 첫선을 보였다. 인공 충전재를 사용한 VX재킷은 얇고 가벼우면서도 구스다운급의 보온력을 갖추고 있다. 물세탁도 가능해 실용적인 제품을 선호하는 젊은 고객층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습도 조절 기능과 신체 컨디션 유지도 탁월해 국가대표선수단인 팀코리아 선수들의 야외 훈련에 사용되면서 그 기능을 인정받은 제품이다.

겨울철 필수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한 다운 부츠 '부띠'도 빠질 수 없는 노스페이스의 대표 제품이다. 부띠는 최고급 구스 다운을 충전재로 사용해 가볍고 따뜻하다. 아이스 픽을 적용한 아웃솔(겉창)과 충격흡수 기능이 있는 중창으로 보행의 안전성을 높였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아웃도어 활동 시에도 멋스럽게 착용이 가능하다. 다양한 길이감의 부띠는 무릎까지 오는 하이컷 기장의 '14 우먼 부띠 하이(14 W BOOTIE HIGH)'부터 종아리를 감싸주는 하프컷 기장의 '14 우먼 부띠(14 W BOOTIE)'와 '14 맨 부띠(14 M BOOTIE)', 발목까지 오는 짧은 길이인 '14 우먼 부띠 쇼트(14 W BOOTIE SHORT)' 등으로 구성됐다.

제품별로 패턴과 색상을 달리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 남성용과 아동용 제품도 함께 출시해 온 가족이 패밀리 룩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노스페이스의 올 시즌 주력 다운재킷인 여성용 '칼리아 다운코트'와 다운부츠 '14 우먼 부띠 하이'를 착용한 모델 공효진(왼쪽 사진)과 'VX 하이브리드 재킷'을 입은 모델 이연희. VX는 노스페이스가 자체 개발한 혁신적 보온소재로 국가대표선수단의 훈련복에도 사용됐다. 사진제공 | 노스페이스

해외관광객 사상 첫 1400만명 돌파

중국인 약 610만명…전년 대비 40% 증가
한국관광공사 "2017년까지 2000만명 목표"

한국을 찾는 해외관광객이 1400만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외래방문객 1400만명 돌파를 기념해 29일 기자간담회와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변추석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1400만명 돌파는 2017년 관광객 2000만명 유치라는 큰 목표로 가기 위한 중요한 도약의 단계다"며 "앞으로 매년 200만명씩 추가 유치해 2017년 2000만명이란 목표를 꼭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 사장은 "1400만명 돌파를 통해 우리 관광시장도 세계 20위권에 진입해 서구 관광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외래관광객 1400만명 돌파는 세월호 참사, 엔화 약세 등 관광산업의 대형 악재 속에서 달성한 수치여서 의미가 남다르다. 올해 관광객 예상 증가율은 16%대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다. 특히 인접 경쟁국인 일본이 엔화 약세 효과를 등에 업고 올해 처음으로 해외관광객 1300만명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한국은 그보다 100만명 이상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2013년 22위였던 세계 인바운드(해외에서 입국하는 방문객) 순위도 1400만명 유치를 통해 20위 이내로 진입할 전망이다.

1400만명의 외래방문객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나라는 역시 중국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한 6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일본 230만명, 미국 77만명 순이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의 방문객도 크게 늘었는데, 특히 홍콩, 태국 등 동남아 국가와 이슬람권 국가, 그리고 러시아 등에서 방문객이 20% 이상 증가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맨 오른쪽)과 변추석 한국관광공사 사장(맨 왼쪽)은 29일 오후 6시 청주국제공항에서 1400만번째 외래관광객인 중국인 리우스취엔(33) 씨와 어머니 장취우란(65세·앉은 사람)를 맞아 환영 행사를 했다. 리우스취엔 씨는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어머니 무릎이 안좋아 병원 진단을 받기 위해 방문했다. 1400만번째 방문객이라는 사실이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제공 | 관광공사

관광수입도 크게 늘었다. 연말까지 예상되는 관광수입은 176억 달러로 2013년 145억 달러보다 약 31억 달러 늘었다. 관광수지 적자도 22억 달러 수준으로 2009년 12억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올해 관광지출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서도 관광수지 적자폭을 크게 줄였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한편 김종덕 문체부 장관과 변추석 관광공사 사장은 29일 오후 6시 1400만번째 외래관광객이 입국하는 청주국제공항에서 환영행사를 가졌다. 1400만번째 입국객에게 축하 꽃다발과 기념품을 증정했고, 탑승한 항공기 승객 전원에게도 한국인삼공사의 홍삼제품과 에버랜드 캐릭터 기념품을 증정했다. 아이돌그룹 에이핑크, 빅스의 미니 콘서트 등 한류 행사도 함께 열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트위터 @kobuakid

에버랜드, 31일 밤 '아듀 2014' 불꽃쇼



용인 에버랜드는 2014년 마지막 날인 31일 밤 11시 30분부터 약 40분간 카운트다운 불꽃쇼 '아듀 2014, 웰컴 2015(사진)'를 실시한다. 불꽃쇼에 앞서 우선 올해 관람객의 인기를 모은 '카니발 판타지 퍼레이드', '마다가스카 Live', '문라이트 퍼레이드' 등의 공연 하이라이트를 모은 갈라쇼가 열린다. 20여 분간의 갈라쇼가 끝나면 새해 카운트다운과 함께 1만5000여 발의 불꽃을 밤하늘로 쏘아올린다. 카운트다운 불꽃쇼를 기다리는 동안 다양한 장르의 콘서트도 즐길 수 있다. 남성중창단 '보헤미안 싱어즈'는 그랜드 스테이지에서 공연을 하고, 홀랜드 스테이지에는 인디밴드 '레이지본'이 출연해 '아듀 2014 홀랜드 락 콘서트'를 벌인다.

아쿠아플라넷 일산 '양띠·말띠 고객은 반값'

한화리조트의 아쿠아플라넷이 신년 이벤트를 실시한다. 아쿠아플라넷 일산은 양띠와 말띠 고객에게 50% 할인해주는 '양말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29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진행하며 동반 3인까지는 20% 할인이 적용된다.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2015년 새해 첫 날 오전 7시30분에 조기 개장하고, 아쿠아플라넷 관람을 하고 떡국을 즐길 수 있는 떡국 패키지를 진행한다. 해돋이 명소 성산일출봉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쿠아플라넷 제주도 1월1일 오전 7시부터 조기 개장하고 특별할인권을 당일 오전 9시30분까지 현장 판매한다. 홈페이지에서는 '떡국 패키지'를 31일까지 판매한다.

롯데호텔울산 '신년 패키지' 2종 마련

롯데호텔울산은 2015년 청양의 해를 맞아 희망찬 새해를 다짐할 수 있는 신년 패키지 2종을 마련했다. 12월30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는 해돋이 명소 간절곶에서 새해 첫 날 해맞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웰컴 2015 패키지'가 준비된다. 19만원에 제공되는 이번 패키지에는 슈페리어 객실 1박과 간절곶 해맞이 이벤트 2인, 양의 해 기념 졸리메 인형 1개가 포함된다. 12월 31일 투숙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간절곶 해맞이 이벤트는 1월1일 일출시각 기준 1시간 30분전에 호텔을 출발해 일출을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간절곶으로 이동한다.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는 '해피뉴이어 2015 패키지'를 선보인다. 문의: 롯데호텔울산 052-960-4300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

하나투어 등 5개사, 소비자 만족도 '최고등급'

소비자원, 국내 14개 여행사 대상 조사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 여행박사, 한진관광 등 해외패키지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업체 5곳이 소비자 만족도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패키지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14개 종합여행사에 대해 1년간 해외 패키지 여행을 다녀온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하나투어를 비롯한 5개 업체가 상등급 판정을 받았다.

업체별로 만족도를 보면 롯데관광이 계약이행과 진행· 안내원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하나투어는 계약과정, 여행박사는 정보제공, 한진관광은 가격에서 각각 소비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달리 레드캡투어, 참좋은 여행, 투어2000, KRT, 온라인투어, 노랑풍선, 인터파크투어 등 7개 여행사는 중등급, 온누리투어와 자유투어는 하등급을 받았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와 공동으로 7월15일부터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실천을 추진했는데, 이번 만족도 조사에서 실천여행사(9개)의 점수가 4점 만점에 3.55점으로 비실천 여행사의 3.44점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범 전문기자

스마트폰에 신용카드 대면 '인증·결제' 뚝딱

KT, BC카드와 손잡고 '탭사인' 선봬

KT는 BC카드, 지불결제 인증전문업체 브이피와 손잡고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탭사인(사진)'을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탭사인은 스마트폰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을 활용해 신용카드를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하면 본인 인증과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가진 신용카드 소지자는 신규카드 발급 없이 모바일 안전결제(mISP)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업데이트 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먼저 선보인 탭사인 '인증' 서비스는 모바일로 30만원 이상 결제 시 미리 등록해놓은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에 접촉하고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드 정보와 개인 정보를 저장하지 않아 스마트폰 분실과 해킹 위험으로부터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KT는 인증 서비스에 이어 내년 상반기엔 탭사인 '결제' 서비스도 상용화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고속도로 통행료, 이젠 티머니로 결제하세요

앞으로 교통카드 한 장만 있으면 현금 없이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장에서 결제할 수 있다.

티머니 발행사 한국스마트카드는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313개 고속도로영업소에서 티머니를 이용해 통행료를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법은 간단하다.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티머니 카드 또는 모바일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터치하면 된다. 티머니 결제 단말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일부 톨게이트에선 징수원에게 통행권과 함께 카드나 휴대전화를 전달해 결제하면 된다.

한국스마트카드는 내년 상반기 민자 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도 통행료의 티머니 결제가 가능토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하이패스나 현금을 소지하지 않아 겪게 되는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이로써 모든 형태의 교통 요금을 티머니 카드나 모바일 티머니를 통해 결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